



환경부, 17개 기업과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는 산업계의 친환경상품 확산을 위해 국내 17개 기업과 제2차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13일 63빌딩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이진 웅진코웨이(주) 부회장을 비롯한 17개 기업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005년에 이어 두번째로 체결되는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매출액 규모 100대 기업이 참여했으며, 친환경상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업과 생활용품 제조업은 물론 식품, 화장품, 정수기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등 소비자 밀착형 기업도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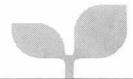
협약참여 17개 기업의 2005년도 총 매출액은 약 34조원으로 기업 매출액의 1% 정도만 친환경상품 구매에 투자하더라도 3천400억원 규모의 친환경상품 시장이 추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며 내부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성이 우수한 원료·부품의 사용과 친환경상품의 개발·생산·유통과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참여기업과 환경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차례씩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1.5MW급 풍력발전 시스템 실증연구' 성공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 신재생에너지 센터는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한진산업에서 수행한 '1.5MW급 풍력발전시스템 실증연구' (연구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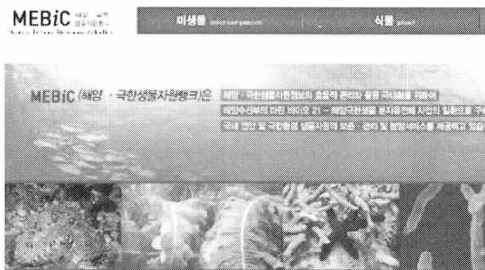
자 : 강서희) 과제가 성공적으로 평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국제인증을 획득한 MW급 풍력발전시스템은 국제 표준 규격 Type Class II-A로 풍속 13m/s에서 시간당 1.5MWh의 전기를 바람으로부터 생산해 낼 수 있으며, 풍속 25m/s에서도 발전이 가능하고 일일 최대 발전량은 36MWh에 달한다.

또한 풍속, 풍향 및 각 운전 환경에 따라 날개 각을 독립적으로 0.1도까지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피치 시스템을 채용하여 시스템의 출력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동시에 시스템 운전 하중을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MW급 풍력발전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국제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그간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았던 풍력발전시스템의 국내 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독자적인 국내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도 분양한다”



국내에서도 해양의 극한환경에서 생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을 산업계 및 학계·연구기관 등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단(단장 김상진 박사)에 ‘해양극한생물자원뱅크(<http://www.megrc.re.kr/mebic>)’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해양극한 생물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분양했다고 밝혔다.

분양하는 해양생물은 국내 연근해 해역을 비롯해 심해의 열수구 및 냉용수 지역, 열대해역, 남북극과 같이 해양의 극한환경에 생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동물, 해조류, 미생물 등이다.

특히 해양생물자원뱅크에는 지난 2005년 김상진, 권개경 박사팀이 국내 최초로 발견해 보고한 ‘목’ 수준의 신규미생물 ‘코르니모나스 광양엔시스’를 포함, 3800주의 미생물과 100여종의 해조류, 50종의 해양동물에 대한 정보가 보존돼 있다.

각각의 자원은 채집정보, 개체정보 이외에도 생물을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분자마커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일관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마린바이오 21사업’을 통해 이뤄진 이 분양사업은 산업계 및 학계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해양극한생물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생명공학기술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해양극한생물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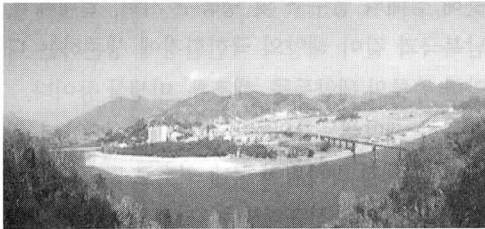
실제로 듀풍 같은 다국적 대기업도 기업의 미래를 해양생물에 걸고 있을 정도로 해양생물자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자원 확보를 소홀히 할 경우 비싼 기술료와 자원이용 부담



로라는 대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생물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하구둑 없는 섬진강과 수어천 '토종 희귀종 보고'



▲ 섬진강변의 하동읍 전경

하구둑이 없어 바닷물 출입이 자유로운 섬진강 하구역과 전남 광양의 수어천 하구역에서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섬진강 하구역과 전남 광양의 수어천 하구역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I급 1종(노랑부리백로), II급 7종(호사비오리, 말뚝가리, 알락꼬리마도요, 붉은발말뚝개, 독수리, 흰목물떼새, 기수갈고둥) 등 총 8종이었다.

바닷물의 출입이 자유로운 섬진강 하구역은 붉은발말뚝개, 일본재철, 기수우렁이 등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기수역)의 고유한 생물상이 잘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미기록종으로 판단되는 기수성 옆새우류 5종이 지점별로 고르게 발견됐다.

수어천 하구역은 넓은 갯벌과 수변 초지가 발



붉은발말뚝개

기수갈고둥

주둥지



호사비오리

알락꼬리마도요

고마리

달해 있고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뚝개와 기수갈고둥을 비롯해 기수역 고유의 저서무척추 동물상이 잘 보존돼 있었다.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겨울철조류 동시센서스에서 관찰된 흑기러기, 큰고니 등 조류 9종을 합치면 섬진강 및 수어천 하구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총 17종에 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한강, 섬진강 등 주요 하구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생태계 현황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체계적인 하구역 보전대책 마련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발간된 보고서는 전국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종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나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가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생애를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 One-Stop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공사는 2004년 7월 공사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이 폐기물 재활용 중심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통제하는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의 적정처리까지 폐기물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으로 확대된 바 있다.



특히, 2005년 12월에 있었던 산하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공사가 폐기물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검사, 기술진단 업무가 공사로 이관 결정되면서 폐기물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동력이 생기게 된 것이다. 공사는 본 업무를 올해 1월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외에도 재활용산업육성,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환경협력사업, 폐기물관련 전문 통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폐기물 순환관리 체계도

폐기물 최소화 ⇒ 폐기물 자원화 ⇒

- | | |
|-----------------|--------------|
| ▷ 폐기물부담금 제도 | ▷ EPR제도 |
|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 ▷ 분리배출표시제도 등 |

폐기물 적정처리 ⇒ 폐기물처리의 안정성 확보

- | | |
|------------------|--------------------|
| ▷ 적법처리시스템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
| ▷ RFID 시스템 |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진단 업무 |
| ▷ 건설폐기물정보 관리 시스템 | |

노동부, 화학물질 유해표시 국제기준 맞춰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로 통일토록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 기준(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다.

노동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꿨다. 또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해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Ex.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했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방식이 부처마다 서로 달라 표지의 이중 제작·부착, 정보 전달의 혼선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유해·위험정보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재해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08년 6월 말까지는 사업장에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